

2025년도 제3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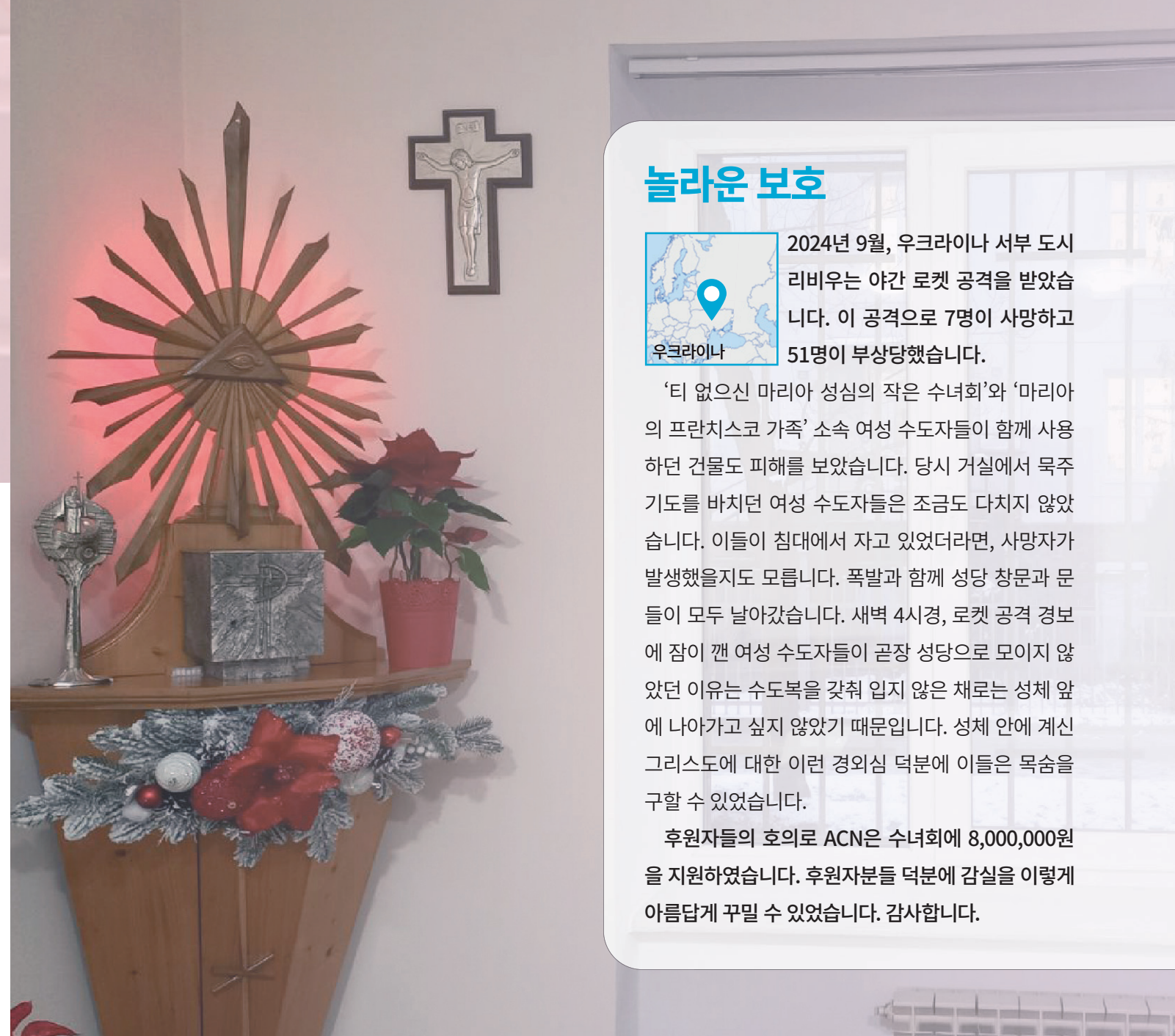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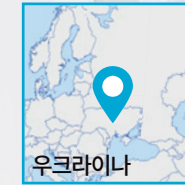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놀라운 보호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는 야간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작은 수녀회’와 ‘마리아의 프란치스코 가족’ 소속 여성 수도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건물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던 여성 수도자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더라면, 사망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폭발과 함께 성당 창문과 문들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새벽 4시경, 로켓 공격 경보에 잠이 깬 여성 수도자들이 곧장 성당으로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수도복을 갖춰 입지 않은 채로는 성체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경외심 덕분에 이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의 호의로 ACN은 수녀회에 8,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자분들 덕분에 감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톨릭교회가 특별히 성모님을 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성모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모상을 꽃으로 장식하거나, 성모님에게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말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성모님의 중재를 통한 구체적인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2025년 사랑의 메아리 3호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믿음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자비의 어머니’,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훌륭한 조연자이신 어머니’, ‘병자의 치유’, ‘죄인의 피신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 ‘신자들의 도움’, ‘즐거움의 샘’ 등등...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희년을 맞아 성모님의 달 5월에 ACN의 희년 로마 순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중 특별히 바티칸 정원 내 루르드 성모 동굴에서 ACN 재단장이신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ACN 순례자들, ACN 직원들, 프로젝트 파트너들, 그리고 후원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 예수님께 다음의 기도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엄숙한 순간에 저희는 성모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성모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어머니, 성모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보살핌과 평화로운 현존을 저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나йка? 성모님은 저희를 항상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끄십니다.

오,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시여, 저희 안에 기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오, 인류의 모후시여, 모든 민족에게 형제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 평화의 모후시여, 세상 평화를 위해 당신 아드님께 전구하여 주십시오.

오, 거룩하신 어머니시여, 고통받고 지친 인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성모님에게 의지하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모님을 통해 저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성모님에게 저희 자신을 의탁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이신 저희 주님께 ACN과 모든 직원과 후원자들을 봉헌합니다. 또한 저희가 섬겨야 하는 모든 이들, 저희 프로젝트, 계획과 여정, 저희 가족과 소명,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이들도 봉헌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이 봉헌을 너그려이 받아 주십시오. 저희가 하느님과 온 인류를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삶의 참된 목표인 하느님 안에서의 온전한 친교와 일치를 이루도록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과 연대하면서,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r CP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국내 성모 성지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 곳에 이르는 성모 성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르완다의 키베호도 그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은 1981년과 1989년 사이에 세 여학생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르완다에서 최근 벌어진 비극적 역사를 고려해 보면 예언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였지요.

교회가 공식 인정한 이 성모 발현의 초기에 성모님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참회와 회심을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 사악함을 한탄했습니다. 성모님을 목격한 여학생들이 본 환시 중에는 피로 물든 강과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이들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1994년에 참혹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 약 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지는 슬픔의 성모로 봉헌되었고, 르완다 국민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얼룩진 전 세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화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첫 성모 발현 당시 르완다의 주교 중 한 분이었던 미사교 주교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형제적 사랑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이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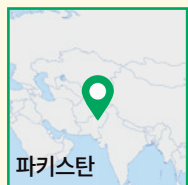
파키스탄: 성모님에게 바치는 열렬한 기도

🔔 건설 지원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모님께 피신합니다!

폭력과 박해가 만연한 나라의 사람들은 정치인, 군대, 경찰로부터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과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저희가 어려울 때 저희 간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항상 저희를 구해주소서.” 교회의 가장 오래된 마리아 기도문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의 박해받는 신자들은 어려움 중에 성모님의 보호 안으로 피신합니다. 이제 이들은 성모님을 기리는 성전을 지어 ‘평화와 희망의 어머니’



파키스탄

에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슬라마바드-라왈핀디교구의 조셉 아르샤드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묵주기도가 인생의 힘든 시련, 유혹, 고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묵주기도는 악에 맞서 싸우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지요.” 이 성전은 이슬라마바드-라왈핀디교구 내 북부 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기온이 낮아서 여름이면 파키스탄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방문도 많이 예상됩니다. 코란에서도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어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무슬림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갖지 못한 무슬림 여성들은 종종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성

성모님에게 희망과 평화를 간구하는 파키스탄 신자들



파키스탄 북부의 언덕 위에 건립될 성모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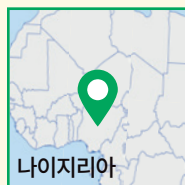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는 어린 소녀

전은 평화와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파키스탄인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실 수 있도록 성전 건립에 162,000,000원을 지원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남동부 아무지주(州)에 있는 성당도 마리아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밤낮으로 성체조배를 드릴 수 있는 별도의 성당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본당에는 이미 성체조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어떤 시간에도 성체조배 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본당 주임 마이클 오카포 신부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본당에서의 성체조배는 장례식, 결혼식, 그리고 본당에서 거행되는 여러 행사와 전례로 인해 중단되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만약 별도의 성체조배실이 있다면 24시간 내내 성체조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 문답을 통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가득한 영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마이클 신부는 덧붙여 말합니다. 지역 신자들이 성전 건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몹시 가난하다 보니 필요한 기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립에 24,3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때로 잊혀 가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올바르게 공경받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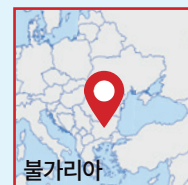
종신 서원을 하는 성체 수녀회의 베라-안나 수녀



그리스도교 일치와 세상의 고난을 위한 기도

👩 여성 수도지 지원

박해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공산주의 시대에 신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탄압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성모님의 특별한 도우심에 대해 전합니다.

요르단(48세)은 대부분의 불가리아인처럼 동방정교회 신자입니다. 요르단을 키워주신 신앙심 깊은 할머니는 총을 겨누는 민병대에게 끌려가 심문받았습니다. 할머니는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요르단을 데리고 갔지요. 당시 사건이 요르단에게는 깊은 외상으로 남았고, 결국 말을 못 하게 되자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난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그만 괴롭히고 페르니크의 성모 영면 성당으로 오십시오.”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성모 성화 앞에서 기도했고, 요르단은 바로 그날 치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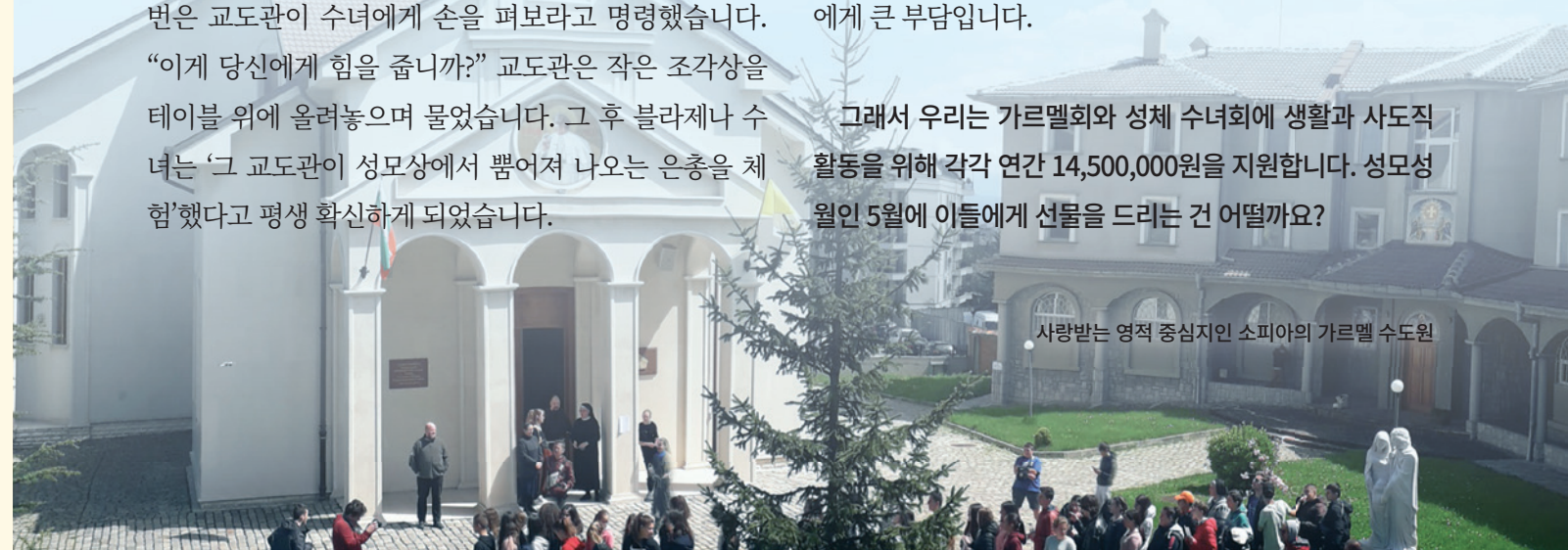
소피아에 있는 가르멜회의 블라제나(86세에 선종) 수녀도 힘든 시기에 성모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블라제나 수녀는 빵 한 조각으로 작은 성모상을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고문당하는 동안, 수녀는 성모상을 몰래 손에 쥐고 있었지요. 그러다 한 번은 교도관이 수녀에게 손을 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힘을 주니까?” 교도관은 작은 조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후 블라제나 수녀는 ‘그 교도관이 성모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총을 체험’했다고 평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가르멜 수도원은 1935년에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기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비잔틴 전례를 따르는 첫 가르멜회였습니다. 1957년에 모든 수도원이 폐쇄되고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교회 자체도 폐쇄되었지만 몰수된 건 아니어서, 가르멜 여성 수도자들은 오르간이 놓여진 성당 위층의 다락방에서 서로 몸을 붙인 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수도회에 입회한 젊은 여성 수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이 여성 수도자들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성소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르멜회 여성 수도자들은 엄격한 관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가톨릭 신자가 2%도 되지 않는 남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에서 사랑받는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체 수녀회는 활동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교리교육과 기도 모임의 주관, 제의방 담당 등의 본당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병자와 어르신, 노숙자들을 돌봅니다.

두 수도회 모두 경제 위기로 인해 점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치솟는 연료와 에너지 가격은 이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멜회와 성체 수녀회에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위해 각각 연간 14,500,000원을 지원합니다. 성모성월인 5월에 이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랑받는 영적 중심지인 소피아의 가르멜 수도원



상투메 프린시페: 가난한 이들을 곁에 가까이



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안데스의 어린이들



인도: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재활에 힘쓰는 장애인 아동



인도: 노숙자에게 미소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수녀

전 세계 여성 수도지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대변인이자 원조자, 은총의 중재자, 고통받는 이의 위로자 - 성모님을 일컫는 호칭 중 일부입니다. 성모님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곤란한 상황을 아들에게 알려 주었듯이, 오늘날에도 성모님은 우리의 곤경을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 명에 이르는 여성 수도자들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곤경을 살피고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케냐: 어려운 처지의 젊은 어머니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파스칼리나 수녀



페루: 제시카 수녀를 신뢰하는 여성들

아가야 했지요. 부랑자들의 범죄 조직의 손아귀에서 구출된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집에서 쫓겨난 어린 소녀들에게 여성 수도자들은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도 드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성 수도자들의 도움으로 이 소녀들이 가족과 화해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허름한 오두막을 찾아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씻기고, 먹이고, 함께 기도하고, 옷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병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고, 거리의 매춘부들을 구조하며, 마약 중독자들을 눈에서 구해냅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느 집에 우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숨은 잠재력이 있어서 격려하고 키워주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을 만나면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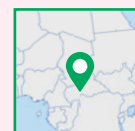
대부분의 여성 수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희생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때로 주목이나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짐바브웨 마스빙고 교구의 레이몬드 무판다세과 주교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사제가 일을 잘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은 가장 힘든 일들을 떠맡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은 어느 여성 수도자가 주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주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소녀를 지원했는데, 이제 그 소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교에게 이 소녀를 추천한 사람은 바로 이 여성 수도자였습니다. “이 소녀를 찾아낸 사람은 주교인 저도, 신부도 아닌 바로 그 수녀였습니다.”

ACN은 해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에서 20,000명이 넘는 여성 수도자들의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적인 여성 수도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또 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느님은
제가
당신을 위해
살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2년 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가르멜회 소속 노르베르토 포지(72) 신부는 자동차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부는 출혈이 심하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실려 20km 떨어진 마을인 보조움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던 신부는 마침내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신부는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발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의 오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절단된 발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오랜 선교지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페데리코 트린체로 신부가 회상합니다. 그에게는 동료 사제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는 성모님을 몹시 사랑하며,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이 선교 사제가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지요. 노르베르토 신부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그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모님의 중재로 목숨을 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가 전합니다. “6개월 동안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뻐요. 그러다가 마침내 의족을 착용하고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리 절단 부위에 계속 쓰러린 상처가 덧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서 다시 수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발을 잃어서 슬프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침착하고 평화로웠지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제가 살아있기를 원하셨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동안 계속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뢰를 설치한 반군에게 어떤 원한도 품지 않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는 2년 전에 뜻하지 않게 두고 떠난 사람들로부터 큰 환호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신부에게 지뢰 사고가 처음 겪은 죽음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두 번이나 반군의 총알이 신부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는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듯한 세상을 떠올릴 때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년을 맞아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몹시 조심스러워하는 신부가 이 부분에서는 아주 활기치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참으로 굉장하면서도 놀랍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한 가지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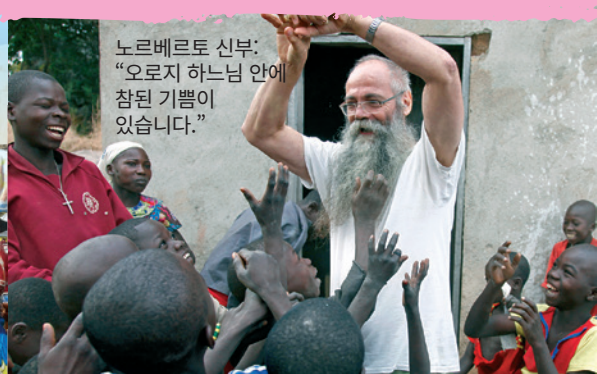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한 발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노르베르토 신부의 귀환을 환영하는 사람들



노르베르토 신부: “오로지 하느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ACN 후원자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ACN 한국지부 소식

ACN '희망의 증거자' 로마 순례

일시 2025년 5월 3일(토) ~ 13일(화)

장소 이탈리아 로마

비상 연락 010-7475-6440 (문자로 연락 가능)

info@churchinneed.or.kr



* 전 세계 ACN 공동체가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은 사무실 전화, 메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 추후에 차례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ACN 한국지부 설립 10주년 기념 감사미사

ACN 본부는 194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ACN 한국지부는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아래의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후원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7월 10일(목), 오후 (추후 재안내 예정)

장소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내용 심포지엄, 감사미사

주제

1)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박해에 맞서 희망의 증거자가 된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부르키나파소 전 외가두구대교구장

필리프 우에드라오고 추기경)



2)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에 맞서 신앙을 지키려는 신자들을 지원하는 ACN의 역할”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문의 02-796-6440, 010-7475-6440